

## 禁灸穴에 관한 문헌적 고찰

김광성<sup>1</sup>, 이병렬<sup>2</sup>, 임윤경<sup>1</sup>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sup>1</sup>경락경혈학교실, <sup>2</sup>침구학교실

### A review study on the Moxibustion-prohibited Point

Kwang-Sung Kim<sup>1</sup>, Byung-Ryul Lee<sup>2</sup>, Yun-Kyoung Yim<sup>1</sup>

Dept. of <sup>1</sup>Meridian & Acupoint, <sup>2</sup>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o increase the safety of moxibustion by understanding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distinguishing features through literary inquiry

**Method** : We searched for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sults** : 1. Upon the advancement of moxibustion technique, the numbers of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creased. 2. Both Foot Meridians and Hand Meridians have similar percentage of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Both Yin Meridians and Yang Meridians have similar percentage of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3. The face has the highest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ratio. The Back has the lowest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ratio. 4. We research 80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and find 31 moxibustion-prohibitive reasons. A key reasons is that heating effect of moxibustion damages tissues, organs and meridian functions.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can be designated upon the patients condition

**Conclusions** : We could learn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from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reatment of moxibustion is more useful and safe.

**Key words** : moxibustion, moxibustion-prohibited point.

## 1. 서론

灸法이란 즉 艾葉 또는 기타의 약물들을 인체표면의 일정한 穴位나 부위에 놓고 燃燒시켜 생기는 온열자극 및 약물의 작용을 이용하여 俞穴과 經絡이 傳導作用을 거쳐 溫通氣血하고 扶正祛邪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보건과 예방의 목적을 이루는 일종의 外治 방법이다<sup>1)</sup>.

灸法の 작용과 적응증을 살펴보면 溫經散

寒 活血通痺의 작용으로 風寒濕痺 痛經 經閉 寒疝腹痛 등을 치료하고, 疏風解表 溫中散寒의 작용으로 外感風寒表證과 中焦虛寒 嘔吐 腹痛 泄瀉 등을 치료하며, 回陽固脫 斂汗復脈의 작용으로 大汗淋漓 四肢厥冷 脈微欲絕 등을 치료하고, 補中益氣 升陽舉陷의 작용으로 胃下垂 腎下垂 子宮脫垂 脫肛 遺尿 崩漏帶下 胎動不安 등을 치료하며, 消癥散結 拔毒泄熱의 작용으로 外科瘡瘍初起 乳癰初起 瘰癧 瘡瘍潰久不愈 등을 치료하며, 降逆下氣 通暢氣機의 작용으로 脚氣衝心 肝陽上亢 등을 치료하며, 防病保健 延年益壽의 작용으로 衰老豫防 延年益壽 등의 효과를

· 교신저자: 임윤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042-280-2610, Fax. 042-280-2641, E-mail: docwindy@dju.ac.kr

· 투고 : 2009/11/20 심사 : 2009/12/16 채택 : 2009/12/20

거둔다<sup>2)</sup>.

이러한 뜸의 다양한 적응증과 효과 때문에 그동안 널리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역대 의서에서 뜸을 뜨지 말아야 할 經穴들을 禁灸穴로 지정하여, 灸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왔다. 현재 일반인들도 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灸法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한 안전한 뜸 시술을 위해서 禁灸穴에 관한 문헌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1. 본 연구에서는 禁灸穴로 정해진 經穴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역대의 대표적인 鍼灸 관련 의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수집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禁灸穴에 관한 자료는 『鍼灸甲乙經』<sup>3)</sup>, 『備急千金要方』<sup>4)</sup>, 『千金翼方』<sup>5)</sup>, 『外臺秘

要』<sup>6)</sup>, 『醫心方』<sup>7)</sup>, 『太平聖惠方』<sup>8)</sup>, 『聖濟總錄』<sup>9)</sup>, 『扁鵲神應鍼灸玉龍經』<sup>10)</sup>, 『神應經』<sup>11)</sup>, 『鍼灸聚英』<sup>12)</sup>, 『醫學入門』<sup>13)</sup>, 『鍼灸大成』<sup>14)</sup>, 『東醫寶鑑』<sup>15)</sup>, 『類經圖翼』<sup>16)</sup>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그 내용을 시대별, 경락별, 부위별, 시술대상자별로 분석하였다.

2. 의서에 따라 禁灸穴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가 사용된 곳을 禁灸穴로 인정하였다.

禁用鍼灸, 禁不宜灸, 不宜灸, 禁灸, 禁不可灸, 不得灸, 禁灸, 不可灸, 忌灸, 不灸 등 이와 같은 표현을 의서에서 찾아서 정리하였다.

## III. 본론

### 1. 禁灸穴의 역사적 변천과 경락별 분포

Table 1. 문헌에 나타난 手三陰經의 禁灸穴

		晉		唐		宋			元	明				
		鍼灸甲乙經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醫心方(日)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扁鵲神應鍼灸玉龍經	神應經	鍼灸聚英	醫學入門	鍼灸大成	東醫寶鑑
手太陰肺經	中府										0			
	天府	0 <sup>1)</sup>	0	0	0 <sup>1)</sup>	0		0			0	0	0	0 <sup>1)</sup>
	尺澤				0				0		0		0	0
	列缺					0				0	0 <sup>2)</sup>			
	經渠	0 <sup>3)</sup>	0	0	0 <sup>3)</sup>	0	0 <sup>3)</sup>	0 <sup>3)</sup>	0	0	0	0 <sup>3)</sup>	0 <sup>3)</sup>	0
	魚際										0	0	0	0
手少陰心經	少商				0		0	0	0	0	0	0	0	0
	陰少海				0		0		0					0
手厥陰心包經	中衝										0	0	0	0
	勞宮						0 <sup>4)</sup>							

1] 天府 : 灸하면 逆氣한다.  
 2] 列缺 : 灸하면 神明을 傷한다.  
 3] 經渠 : 灸하면 神明을 상한다.  
 4] 勞宮 : 만약 灸하면 衄血이 생기게 한다.

禁灸穴에 관한 문헌적 고찰

Table 2. 문헌에서 나타난 足三陰經의 禁灸穴

		晉	唐			宋			元	明					
		鍼灸 甲乙經	備急千 金要方	千金 翼方	外臺 秘要	醫心方 (日)	太平 聖惠方	聖濟 總錄	扁鵲神 應鍼灸 玉龍經	神應 經	鍼灸 聚英	醫學 入門	鍼灸 大成	東醫 寶鑑	類經 圖翼
足太陰脾經	隱白										○	○	○	○	
	大都						○ <sup>5]</sup>								○ <sup>5]</sup>
	商丘			○											
	漏谷										○	○	○	○	
	陰陵泉										○	○	○	○	
	腹哀										○	○	○	○	
	周榮										○	○	○	○	
足少陰腎經	湧泉													○ <sup>6]</sup>	
足厥陰肝經	足厥陰肝經은 禁灸穴이 없음.														

5] 大都 : 부인이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지 않으면灸하면 안된다.

6] 湧泉 :灸하면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Table 3. 문헌에서 나타난 手三陽經의 禁灸穴

		晉	唐			宋			元	明					
		鍼灸 甲乙經	備急千 金要方	千金 翼方	外臺 秘要	醫心方 (日)	太平 聖惠方	聖濟 總錄	扁鵲神 應鍼灸 玉龍經	神應 經	鍼灸 聚英	醫學 入門	鍼灸 大成	東醫 寶鑑	類經 圖翼
手太陽小腸經	陽小海				○										
	肩貞									○	○	○	○	○	
	臑膠									○	○	○	○	○	
手陽明大腸經	商陽										○				
	合谷			○											
	肩髃						○ <sup>7]</sup>				○ <sup>7]</sup>				
	禾膠									○	○	○			
手少陽三焦經	迎香				○	○	○		○		○	○	○	○	
	關衝				○										
	陽池			○			○			○	○	○	○	○	
	天牖					○ <sup>8]</sup>	○ <sup>8]</sup>			○	○	○	○ <sup>8]</sup>	○	
	瘰脈	○	○	○	○						○		○	○	
	耳門	○	○ <sup>9]</sup>	○	○	○				○	○			○	
	耳和膠									○	○	○		○ <sup>10]</sup>	
絲竹空	○ <sup>11]</sup>	○ <sup>11]</sup>	○	○ <sup>11]</sup>	○ <sup>11]</sup>		○ <sup>11]</sup>			○	○	○ <sup>11]</sup>	○ <sup>11]</sup>	○ <sup>11]</sup>	

7] 肩髃 :灸하면 팔이 가늘어진다.

8] 天牖 :灸하면 얼굴에 붓고瘡이 생기며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

9] 耳門 :耳中에 마른 귀지가 있으면灸해서는 안된다.

10] 耳和膠 :灸하면 눈이 멀게 된다.

11] 絲竹空 :땀을 뜨고 不幸하면 눈이 작아지고 안보이게 된다.

Table 4. 문헌에서 나타난 足三陽經의 禁灸穴

		唐				宋			元	明					
		鍼灸 甲乙經	備急千 金要方	千金 翼方	外臺 秘要	醫心方 (日)	太平 聖惠方	聖濟 總錄	扁鵲神 應鍼灸 玉龍經	神應 經	鍼灸 聚英	醫學 入門	鍼灸 大成	東醫 寶鑑	類經 圖翼
足太陽膀胱經	睛明				0		0	0		0	0	0	0	0	0
	攢竹						0	0			0	0	0	0	0
	眉衝						0				0				
	五處	0													0
	承光	0	0	0	0	0	0	0			0	0	0	0	0
	天柱										0	0	0		0
	大杼						0				0				0
	心俞	0					0	0			0	0	0	0	0
	白環俞	0	0	0	0		0	0			0	0	0	0	0
	承扶										0	0	0		0
	殷門										0	0	0	0	0
委中										0	0	0	0	0	
申脈										0	0	0	0	0	
足陽明胃經	承泣	0	0	0	0	0	0				0				0
	四白										0				
	下關	0 <sup>[12]</sup>	0 <sup>[12]</sup>	0	0			0			0	0	0	0	0
	頭維	0	0	0	0	0		0		0	0	0	0	0	0
	人迎	0	0	0	0	0		0 <sup>[13]</sup>			0	0	0	0	0
	乳中	0 <sup>[14]</sup>	0	0	0						0	0	0		0
	梁門														0 <sup>[15]</sup>
	氣衝	0 <sup>[16]</sup>	0 <sup>[16]</sup>	0	0	0									
	髀關										0	0	0		0
	伏兔	0	0	0	0	0	0	0		0	0	0	0	0	0
	陰市	0	0	0	0			0		0		0	0	0	0
犢鼻														0	
足三里											0	0	0	0 <sup>[17]</sup>	
條口										0	0	0	0		
足少陽膽經	瞳子膠										0		0		
	頭臨泣										0	0	0	0	0
	淵腋	0	0 <sup>[18]</sup>	0	0 <sup>[18]</sup>	0		0 <sup>[18]</sup>			0	0	0	0	0
	中瀆										0				
	膝陽關	0	0	0	0			0			0	0	0	0	0
地五會	0 <sup>[19]</sup>	0	0	0	0		0			0	0	0	0 <sup>[19]</sup>	0	

12] 下關 : 耳中에 膿이 있으면 灸해서는 안된다.

13] 人迎 : 灸하면 사람을 상한다.

14] 乳中 : 灸하면 蝕瘡가 생기고 농혈이 맑은 자는 可治 하고 瘡에 息肉이 생기고 蛇瘡하면 죽는다.

15] 梁門 : 孕婦는 禁灸한다.

16] 氣衝 : 灸하고 不幸하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

17] 足三里 : 소아는 足三里에 뜸뜨는 것을 忌한다.

18] 淵腋 : 灸하고 不幸하면 종기와 馬瘡가 생기며, 馬瘡가 안쪽으로 터지면 사망하고, 寒熱이 생기면 치료할 수도 있다.

19] 地五會 : 灸하면 사람이 점점 마르게 되고, 3년안에 죽게 된다.

禁灸穴에 관한 문헌적 고찰

Table 5. 문헌에서 나타난 任督脈의 禁灸穴과 각 문헌에서 나타난 禁灸穴의 합계

		鍼灸 甲乙經	備急 千金 要方	千金 翼方	外臺 秘要	醫心方	太平 聖惠方	聖濟 總錄	扁鵲 神 應鍼灸 玉龍經	神應 經	鍼灸 聚英	醫學 入門	鍼灸 大成	東醫 寶鑑	類經 圖翼
任脈	中極				0 <sup>20]</sup>										0 <sup>20]</sup>
	石門	0 <sup>21]</sup>	0 <sup>21]</sup>	0	0	0 <sup>21]</sup>		0			0 <sup>21]</sup>	0 <sup>21]</sup>			0 <sup>21]</sup>
	陰交				0 <sup>22]</sup>										0 <sup>22]</sup>
	水分				0 <sup>23]</sup>										0 <sup>23]</sup>
	下腕				0 <sup>24]</sup>										0 <sup>24]</sup>
	建里											0			0 <sup>25]</sup>
督脈	中腕											0			0 <sup>26]</sup>
	鳩尾	0	0	0	0						0	0	0		0
	脊中	0 <sup>27]</sup>	0	0	0	0	0	0 <sup>27]</sup>			0	0 <sup>27]</sup>	0		0 <sup>27]</sup>
	中樞														0 <sup>28]</sup>
	瘡門	0 <sup>29]</sup>	0	0	0	0	0 <sup>29]</sup>	0 <sup>29]</sup>			0	0	0 <sup>29]</sup>	0 <sup>29]</sup>	0 <sup>29]</sup>
	風府	0 <sup>30]</sup>	0	0	0	0	0	0			0	0	0		0 <sup>30]</sup>
腦戶	0	0	0	0	0	0 <sup>31]</sup>	0				0	0 <sup>31]</sup>		0 <sup>31]</sup>	
素膠	0			0		0	0			0	0	0	0	0	
합계		27	24	27	36	18	21	27	4	9	43	61	47	41	63

- 20] 中極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1] 石門 : 女子가 汗을 뜨고 不幸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22] 陰交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3] 水分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4] 下腕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5] 建里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6] 中腕 : 孕婦는 灸할 수 없다  
 27] 脊中 : 灸하면 사람이 痿証이 생기고, 등허리가 굽게 된다.  
 28] 中樞 : 灸하면 사람의 등허리가 굽게 된다.  
 29] 瘡門 : 灸하면 사람이 병어리가 된다.  
 30] 風府 : 灸하면 사람이 병어리가 된다.  
 31] 腦戶 : 灸하면 사람이 병어리가 된다.

Table 6. 禁灸穴의 手經과 足經의 분포.

	手經			足經		
	經絡	經穴	禁灸	經絡	經穴	禁灸
陰經	手太陰肺	11	7	足太陰脾	21	7
	手少陰心	9	1	足少陰腎	27	1
	手厥陰心包	9	2	足厥陰肝	14	0
陽經	手太陽小腸	19	3	足太陽膀胱	67	13
	手陽明大腸	20	5	足陽明胃	45	14
	手少陽三焦	23	6	足少陽膽	44	6
합계		91	24		218	41

Table 7. 禁灸穴의 陰經과 陽經의 분포.

	陰經			陽經		
	經絡	經穴	禁灸	經絡	經穴	禁灸
手經	手太陰肺	11	7	手太陽小腸	19	3
	手少陰心	9	1	手陽明大腸	20	5
	手厥陰心包	9	2	手少陽三焦	23	7
足經	足太陰脾	21	7	足太陽膀胱	67	13
	足少陰腎	27	1	足陽明胃	45	14
	足厥陰肝	14	0	足少陽膽	44	6
합계		91	18		218	48

## 2. 禁灸穴의 부위별 분포

禁灸穴이 있는 부위를 頭, 面, 頸項, 胸, 腹, 背, 腰, 上肢, 下肢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Table 8. 신체 부위별에 나타난 禁灸穴.

부위	갯수	禁灸穴
頭	9	眉衝, 五處, 承光, 天柱, 瘦脈, 頭臨泣, 瘡門, 風池, 腦戶
面	14	禾膠, 迎香, 承泣, 四白, 下關, 頭維, 觀膠, 睛明, 攢竹, 耳門, 耳禾膠, 絲竹空, 瞳子膠, 素膠
頸項	2	人迎, 天牖
胸	5	中府, 乳中, 周榮, 淵腋, 鳩尾
腹	8	中極, 石門, 陰交, 水分, 下脘, 建里, 中脘, 腹哀
腰背	5	大杼, 心俞, 白環俞, 脊中, 中樞
上肢	16	天府, 尺澤, 列缺, 經渠, 魚際, 少商, 商陽, 合谷, 肩髃, 少海, 小海, 肩貞, 中衝, 關衝, 陽池, 勞宮
下肢	21	氣衝, 髀關, 伏兪, 陰市, 犢鼻, 足三里, 條口, 梁門, 隱白, 大都, 商丘, 漏谷, 陰陵泉, 承扶, 殷門, 委中, 中脈, 湧泉, 中瀆, 陽關, 地五會

Table 9. 禁灸穴의 신체 부위별 분포

부위별 經穴수	해당부위經穴수	頭	面	頸項	胸	腹	腰背	上肢	下肢	총합
	해당부위經穴수/전체經穴수(%)	38	25	10	33	47	60	66	82	361
부위별 禁灸穴수	해당부위禁灸穴수	9	14	2	5	8	5	16	21	80
	해당부위禁灸穴수/전체禁灸穴수(%)	11.3%	17.5%	2.5%	7.5%	10%	6.3%	20%	26.3%	
	해당부위禁灸穴수 /해당부위經穴수(%)	23.6%	56%	20%	15%	17%	8.3%	24.2%	25.6%	

## 3. 禁灸의 이유

361개의 정혈 중 禁灸穴은 80穴이었으나, 이 중 灸를 금하는 이유가 기재된 것은 31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灸를 금하는 이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 1) 연계장부의 기능 및 經絡 유주 노선 등과 관련한 경우

天府 : 禁不可灸, 灸之令人逆氣<sup>3)</sup>  
 天牖 : 禁不宜灸, 若灸之, 面腫, 眼合<sup>15)</sup>  
 耳和膠 : 灸之目盲<sup>16)</sup>

### 2) 經穴 주변 기관의 손상을 우려한 경우

下關 : 耳中有干適低不可灸<sup>3)</sup>  
 耳門 : 耳中有膿及適低無灸<sup>4)</sup>  
 絲竹空 : 不宜灸, 灸之不幸令人目小及盲<sup>3)</sup>  
 肩髃 : 不宜多灸, 恐手臂細<sup>9)</sup>  
 脊中 : 誤用令人偃僂<sup>13)</sup>  
 中樞 : 灸之令人腰背偃僂<sup>16)</sup>  
 瘡門 風府 : 灸之令人瘡<sup>3)</sup>  
 腦戶 : 不得灸, 若灸令人失瘡<sup>8)</sup>

### 3) 經穴 부위의 조직손상을 우려한 경우

乳中 : 禁不可刺灸. 灸刺之, 不幸生, 蝕瘡, 瘡中有膿血清汁者, 可治; 瘡中有息肉若蛇瘡者, 死<sup>3)</sup>  
 勞宮 : 不得灸, 灸即令息肉日加<sup>8)</sup>  
 淵腋 : 灸之不幸, 生腫馬瘡, 內潰者死, 寒熱生

馬瘡可療<sup>6)</sup>

4) 女子 또는 妊娠婦의 禁灸穴

Table 10. 여자와 부인에게만 禁灸穴로 사용되는 경우.

經穴	내용
梁門	孕婦禁灸 <sup>16)</sup>
大都	婦人孕不論月數 產後未滿百日, 不宜灸之 <sup>8,16)</sup>
中極	孕婦不可灸 <sup>6,16)</sup>
石門	女子禁不可刺灸中央, 不幸使人絕子 <sup>3)</sup> 女子不灸 <sup>4)</sup> 女子禁不可灸 <sup>4,6,7)</sup> 禁不可灸, 大忌 <sup>5)</sup> 婦人禁鍼, 禁灸, 犯之終身絕子 <sup>12)</sup> 惟婦人灸之絕產 <sup>13)</sup> 婦人禁刺灸, 犯之終身絕孕 <sup>16)</sup>
陰交	孕婦不可灸 <sup>6,16)</sup>
水分	孕婦不可灸 <sup>6,16)</sup>
下脘	孕婦不可灸 <sup>6,16)</sup>
建里	禁灸 <sup>13)</sup> 宜鍼不宜灸; 孕婦尤忌之 <sup>16)</sup>
中脘	孕婦不可灸 <sup>16)</sup>

5) 小兒의 禁灸穴

足三里 : 小兒忌灸三里<sup>16)</sup>

6) 기타

人迎 : 灸之傷人<sup>9)</sup>

湧泉 : 若灸癱人行動<sup>15)</sup>

地五會 : 灸之令人瘦, 不出三年死<sup>3)</sup>

列缺 : 灸則傷人神明<sup>13)</sup>

經渠 : 灸之傷人神明<sup>3)</sup>

氣衝 : 使人不得息<sup>3)</sup>

IV. 고찰

1. 禁灸穴의 시대별 변천

灸法과 鍼法의 발전은 각기 나뉘어져 발

전해 왔다. 晉代에서 宋代에 이르기까지 灸法을 중시한 학파가 鍼구학의 역사에서 월등한 우세를 차지하여 灸法의 발전이 있었으며 宋代 이후에는 鍼을 중시한 학파가 월등히 발전하게 되었다<sup>17)</sup>. 따라서 초기에 禁灸穴로 정했던 經穴들이 후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禁灸穴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鍼灸甲乙經』에서 27개였던 禁灸穴중에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氣衝과 五處를 제외한 天府, 經渠, 承泣, 下關, 頭維, 人迎, 乳中, 伏兔, 陰市, 承光, 心俞, 白環俞, 瘦脈, 耳門, 絲竹空, 淵腋, 膝陽關, 地五會, 石門, 鳩尾, 脊中, 瘰癧, 風府, 腦戶, 素膠 등 25개이다. 당대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은 거의 『鍼灸甲乙經』의 禁灸穴과 유사하다. 그 후 당대 『外臺秘要』에서 禁灸穴의 수가 36개로 증가하며, 명대 『鍼灸聚英』에서 43개로 더욱 증가한다. 이후 『醫學入門』에서 61개로 가장 큰 폭 상승을 한다. 또한 『類經圖翼』에서는 63개의 禁灸穴을 지정하고 있다. 이것은 초창기 『鍼灸甲乙經』의 27개보다 2.3배 늘어난 것이다. 후대의 禁灸穴들을 살펴보면 禁灸穴로 정한 이유를 따로 언급한 곳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禁灸穴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肩貞, 觀膠, 天柱, 承扶, 殷門, 委中, 禾膠, 瞳子膠, 頭臨泣 등의 經穴들은 禁灸穴이 아니었으나, 명대 『鍼灸聚英』 『醫學入門』, 『類經圖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禁灸穴로 지정이 되었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송대의 『聖濟總錄』에서는 위에

언급한 經穴들이 禁灸穴이 아니었으나, 다른 經穴과는 다르게 뜸을 몇장 뜨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가들은 灸法을 시행할 명분이 없어서 禁灸穴로 지정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禁灸穴이 추가되어 후대에는 뜸을 금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禁灸穴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사료된다.

## 2. 禁灸穴의 경락별 분포

手經絡과 足經絡의 經穴의 수는 91 대 218이며 禁灸穴의 수는 24대 41이다. 手經絡에서 禁灸穴이 나타나는 비율은 약 26%, 足經絡에서 약 19%이다. 手經絡이 禁灸穴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로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禁灸穴은 手經絡과 足經絡에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陰經絡과 陽經絡의 經穴의 수는 91대 218이며 禁灸穴의 수는 18 대 48이다. 陰經絡에서 禁灸穴이 나타나는 비율은 약 20%이고, 陽經絡에서는 약 22%이다. 陰經絡과 陽經絡에서 禁灸穴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任脈과 督脈의 禁灸穴을 비교해 보면, 任脈이 8개 督脈이 6개로 나타나지만, 任脈의 경우에는 임신부와 부인에게 주의해야할 특수한 경우의 禁灸穴이 7개를 제외하면, 鳩尾穴 1개만 일반적인 禁灸穴이라고 할 수 있다. 督脈의 경우는 頭面部의 經穴이 포함되기 때문에 禁灸穴의 수가 많다고 보여진다.

## 3. 禁灸穴의 신체부위별 분포

전체 禁灸穴 중에서 각 부위의 禁灸穴 비율과 전체 經穴 중에서 각 부위의 經穴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중에서 經穴 대비 禁灸穴의 수가 특별히 많거나 적은 부위가 나타난다. 각 부위의 禁灸穴이 나타나는 비율의 평균은 약 24% 정도 되는데 面부위는 56%로 평균보다 2배 이상 禁灸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腰背部위는 8.3%로 평균의 1/3밖에 안되게 禁灸穴 존재비율을 보인다. 그 이유는 面부위의 경우 피부가 연약하여 뜸으로 인한 화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面부위의 뜸 흉터는 환자에게 사회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腰背部위는 기육이 두껍고, 背俞穴들이 많아서 뜸의 효용가치가 높으며,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도 의복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禁灸穴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 4. 禁灸의 이유 및 부작용

### 1) 연계장부의 기능 및 經絡 유주 노선 등과 관련한 경우

天府에 灸하면 逆氣한다 하였고, 天膈에 灸하면 面腫, 眼眵이라 하였고, 耳和膠에 灸하면 目盲이 된다 하였다.

肺는 肅降을 主하며, 天府는 欬, 上氣, 喘不得息 등을 주치한다 하였다<sup>3)</sup>. 手少陽三焦經은 耳, 面, 外眼角으로 流注한다. 天膈는 面질환, 目질환, 耳질환 등을 주치하고 耳和膠 역시 耳질환을 주치한다. 즉, 이 經穴들



의 주치병증들이 이 經穴들에 뜸치료 시 부작용과 일치한다.

이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침시술을 하면 이들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나, 뜸시술을 하면 오히려 이들 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뜸시술을 적절히 하면 이들 병증을 치료할 수 있고, 뜸시술을 잘못하면 이들 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

## 2) 經穴 주변 기관의 손상을 우려한 경우

下關은 耳中에 마른 귀지가 있으면 灸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耳門은 耳中에膿이 있으면 灸할수 없다고 하였고, 絲竹空은 灸하면 目小及盲 된다 하였고, 人迎은 灸하면 傷人한다 하였고, 肩髃는 灸를 많이 하면, 手臂細한다 하였고, 脊中에 灸하면 人僵痺된다 하였고, 中樞에 灸하면 人腰背僵痺된다 하였고, 瘰癧 風府에 灸하면 瘡 된다 하였고, 腦戶에 灸하면 失瘖한다 하였다.

下關과 耳門은 귀 주변에 있는 經穴들로, 耳中에 마른 귀지나 농이 보이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 禁灸하라고 하였다. 즉, 항상 禁灸하는 것이 아니라 灸에 의하여 耳病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灸를 禁하였다.

絲竹空은 눈 가까이에 위치하고, 人迎은 경동맥에 가까이 위치하고, 肩髃는 臂 가까이에 위치하고, 脊中 中樞는 요추 가까이에 위치하고, 瘰癧 風府 腦戶의 경우 뇌에 가까이 위치한다. 이들 經穴들은 가까이에 있는 주요 기관들을 손상을 우려하여 灸를 禁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穴들은 손상을 우려한 기관들의 病症을 주치하기도 한다. 즉, 絲竹空은 目질환을, 肩髃는 臂질환을, 脊中 中樞는 腰背질환을, 瘰癧 風府 腦戶는 언어이상 또는 정신질환 등을 주치한다.

이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하나는, 침시술을 하면 이들 주변기관의 질환을 주치하고, 뜸시술을 하면 이들 주변기관에 질환을 유발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뜸시술을 적절히 하면 이들 주변기관의 질환을 주치할 수 있고, 뜸시술을 잘못하면 이들 주변기관에 질병을 유발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위에서 下關, 耳門 등의 경우 항상 禁灸한 것이 아니라 질환의 악화가 우려될 경우에만 禁灸한 것으로 보아, 다른 經穴들도 뜸시술 자체를 완전히 금했다기 보다는 부적합한 경우의 뜸 시술을 금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 3) 經穴 부위의 체표 조직손상을 우려한 경우

乳中에 灸하면 蝕瘡가 생기며, 勞宮에 灸하면 息肉이 생기고, 淵腋에 灸하면 生膿息한다 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經穴들은 대개 기육이 얇은 곳에 위치하거나 열자극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1) ~ 3)에서 禁灸의 이유는 해당 經穴의 효능 및 소재부위와 유관하였다. 뜸시술에 의한 부작용이 해당 經穴의 주치병증

과 같은 경우는, 그 經穴의 속성에 열자극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주변 주요기관이 열에 민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열자극이 적합하지 않은 병증에만 禁灸이라고 제시된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절대적으로 灸를 禁한 경우는 經穴소재부위의 체표조직이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4) 婦人에게 禁灸하는 경우

특정 經穴들은 부인에게 灸를 금하는 경우가 있다. 부인 관련 禁灸穴은 크게 3종류로 나타났다.

##### (1) 孕婦에게 금하는 경우

任脈의 中極, 石門, 陰交, 水分, 下脘, 建里, 中脘穴과 足陽明胃經의 梁門穴을 금했다.

任脈의 경우 經絡的 機能이 胎兒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禁灸穴들이 腹部에 위치하여, 胎兒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禁灸穴로 지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梁門穴의 경우에도 中脘 외측 3寸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복부이기 때문에 禁灸穴로 지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의 혈에는 특별히 禁灸하라는 말이 없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복부의 모든 경혈은 임신 중 禁灸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2) 출산후 100일간 금하는 경우

足太陰脾經의 大都혈을 출산후 100일간 禁灸穴로 지정하였다.

大都是 通心脈, 調氣血하기 때문에 産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잘못된 뜸시술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뜸이 不妊을 유발하는 경우

任脈의 石門에 灸하면 부녀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石門의 異名이 絶子, 絶孕인 것과 관련된다.

#### 5) 小兒에게 禁灸하는 경우

足陽明胃經의 足三里를 小兒에게 있어서 忌한다고 하였다.

足三里에 灸法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용되는 치료법이긴 하나, 忌灸라고 한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경골의 성장판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 6) 기타

湧泉은 灸하면 癡人行動한다 하였고, 地五會는 灸하면 令人瘦하여 3년안에 죽는다고 하였고, 列缺과 經渠는 灸하면 神明을 상한다 하였고, 氣衝은 灸하면 不得息한다 하였고,

湧泉은 발바닥에 있으므로, 뜸의 부작용을 보행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地五會는 內損唾血不足, 外無膏澤을 치료할 수 있는데18), 灸法을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욱 수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된다. 列缺은 頭項에 작용하는 四總穴 중 하나로써 神明을 치료할 수 있으나 灸法을 잘못 시행하면 神明을 상하게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經

渠는 요골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잘못된 구법으로 인해 神明을 상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氣衝은 대퇴동맥과 가까이 위치하며 痛不得息을 치료하는데, 잘못된 구법은 오히려 不得息을 유발한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灸法の 편리한 이용성과 뛰어난 효과 때문에 일반인들에게조차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禁灸穴에 대해 조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시대별, 경락별, 부위별로 분석하고, 禁灸의 이유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대적으로 禁灸穴은 『鍼灸甲乙經』에서 27개의 穴로 시작하였으나, 임상경험의 누적에 따라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2. 경락별 禁灸穴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手經絡과 足經絡 禁灸穴의 비율은 약 26%, 20%로 큰 차이가 없으며, 陽經絡과 陰經絡의 禁灸穴의 비율도 약 20%, 22%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禁灸穴은 경락별로 대략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위별 禁灸穴을 살펴보면 頭, 面, 頸項, 胸, 腹, 腰背, 上肢, 下肢에 평균 24%로 분포하는데, 특히 面部위에 56%로 평균의 2배이상 존재하며, 腰背부위에는 8%로 평균의 1/3로 존재한다. 面部위의 특성상 灸法の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며, 腰背부위는 부작용도 적을 뿐만 아니

라 背俞穴의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필자가 조사한 禁灸穴은 총 80개이며, 그중 禁灸의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 경우는 31개였다. 온열효과를 목표로 하는 구법의 특성 때문에 열기에 약한 체표 또는 내부조직이 있는 경혈과 열기로 인해 오히려 반대의 치료효과를 주는 경혈들이 禁灸穴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1. 奚永江. 鍼灸法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 50.
2. 康鎖彬. 鍼灸法學. 河北 :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 8.
3. 皇甫謐. 鍼灸甲乙經. 北京 : 人民軍醫出版社. 2005 : 84-5, 88-9, 91-2, 96, 98-9, 105, 107, 109, 113, 116-7, 131-3, 171-2.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7 : 993, 995, 1000, 1003-5, 1011, 1013.
5.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397-9, 401, 412, 416, 435-6.
6. 王燾. 外臺秘要.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78, 1087, 1092-3, 1098, 1110, 1112.
7. 丹波康賴. 醫心方. 北京 : 華夏出版社. 1996 : 67.
8. 太宗命. 太平聖惠方. 서울 : 翰成社. 1979 : 3200, 3175, 3177-8, 3183, 3185, 3187-8, 3190, 3195-6, 3198, 3200.
9. 趙佶. 聖濟總錄. 서울 : 醫聖堂. 1993 :

- 3129-30, 3133, 3135-6, 3138, 3144, 3150-2, 3164-5, 3170, 3176-8.
10. 王國瑞. 扁鵲神應鍼灸玉龍經. 서울 : 醫聖堂. 1994 : 108, 110.
11. 陳會. 神應經. 서울 : 醫聖堂. 1994 : 15-6, 30-1.
12. 高武. 鍼灸聚英. 서울 : 醫聖堂. 1969 : 95, 127, 247.
13.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2000 : 260, 278-9, 283-5, 290-4, 303-5, 313-4, 318-21, 349, 355-9, 372-4, 379-81, 895.
1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 행림출판. 2003 : 144-5, 87-8, 192, 199, 216-8, 221, 225, 239-40, 245-6, 248.
15. 許浚. 東醫寶鑑. 경남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2289, 2293, 2295-6, 2298-301, 2303-6, 2308, 2310, 2312-5, 2322-3, 2325-8, 2330, 2332, 2334.
1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 한미의학. 2009 : 217, 257, 261, 270-1, 274, 276, 278, 281-2, 298,306, 308-10, 318, 349, 353-4, 306, 308-10, 318, 349, 353-4, 359, 365, 369, 378, 380, 382, 384-5, 394, 397-8.
17. 우현수, 이윤희, 김창환. 灸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및 최근 研究 動向.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4) : 1-15.
18. 전국한 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 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강원 : 의방출판사. 2009 : 26.